

순천환경단체, '동천 출렁다리' 백지화 요구 시위

“특혜의혹 제기·부당한 업무 드러나”

순천시 “공사 계획 예정대로 추진”

순천지역의 환경단체가 27일 오전 9시부터 동천 출렁다리 공사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적폐의 산물 출렁다리 당장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순천시는 출렁다리 사업 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한 업무과정이 드러난 만큼 명분 없는 사업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 전임시장의 적폐와 예산낭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운영주의로 사업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출렁다리 사업 과정을 독선 행정의 교훈으로 삼고, 기존에 투입된 자재대금과 선금금은 '배달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출렁다리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회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당초 30억원(교량 25억원+철쭉동산 등 부대공사 5억원)을 들여 봉화산 둘레길의 조곡동 철도관사와 금호타운 뒤편에 길이 184m, 높이 37m, 너비 1.5m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봉화산 둘레길에 순천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순천만정원으로 집중되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명분으로 2016년부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지역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으면서도 10여원이 넘는 출렁다리 공사자재의 발주와 대금 지급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3월에는 환경단체가 감사원에 이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시가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까지 맺은 것이 드러났고, 환경단체는 출렁다리 사업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허석 순천시장은 봉화산 출렁다리 등 민원이 많았던 분야는 시민 여론을 수렴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년여의 재검토에 들어간 순천시는 조례수정공임과 국가정원 내 품의 다리 옆, 풍덕동 그린웨이와 오천동을 연결하는 동천 등 3곳을 검토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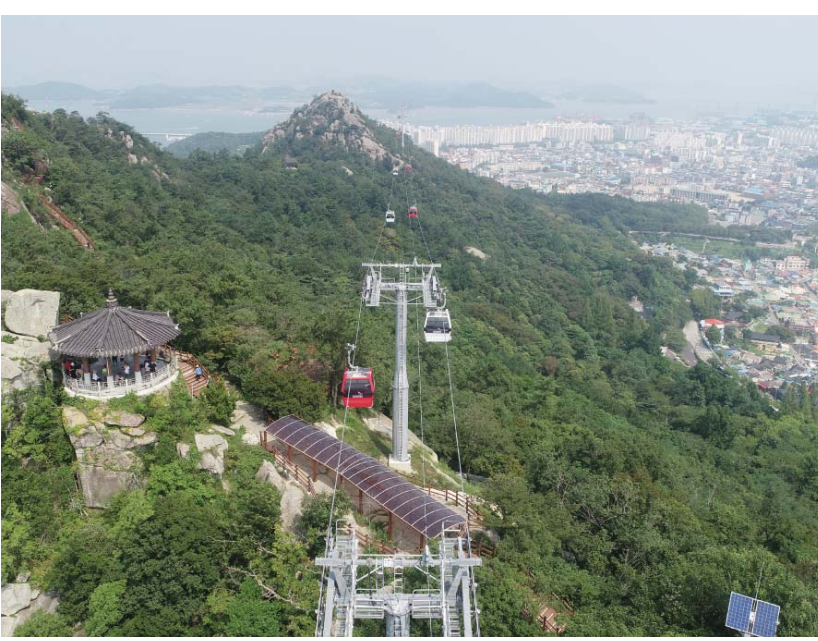
지난 19일 간부회의를 통해 봉화산 대신 동천변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발주해 놓은 공사자재의 재활용은 물론 새로운 관광 콘텐츠 기능, 주민편의 등을 고려했다”며 “출렁다리는 국가정원과 순천역을 연결하는 그린웨이와 오천지구를 한가지 동선으로 잇게 해 국가정원의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강점이 있다”고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가 12월 준공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가 27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봉화산 대신 동천을 가로질러 설치되는 '출렁다리' 공사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내달 7일부터 운행...산·바다 비경 '만끽'

준공검사 적합통보...국내 최장·9월6일 개통식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목포해상케이블카가 다음달 6일 개통식을 갖고 7일부터 정상운행을 시작한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케이블카 전체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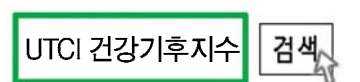
점검을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고, 8월에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준공검사를 의뢰, 23일자로 적합 통보를 받았다.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 북항승강장 주차장에서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로 국내 최장인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 당일인 9월 6일은 정상운행을 하지 않으며,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정시운행을 시작한다. 운행시간은 하계(3~10월)는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동계(11~2월)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금·토요일은 야간에 1시간 늘려 운행한다. 케이블카 탑승장치(케빈)는 총 55대로 일반(40대)과 바닥 투명한 재질로 된 크리스탈 (15대) 2가지 형태가 운행된다. 이용요금은 일반 캐빈은 대인 기준 왕복 2만2000원(소인 1만6000원), 편도 1만8000원(소인 1만2000원)이며, 크리스탈 캐빈은 대인 왕복 2만7000원(소인 2만1000원), 편도는 2만1000원(소인 1만5000원)이다. 목포시민은 편도 이용요금으로 왕복 탑승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단체 및 법정 할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해상케이블카 누리집 및 목포시청 누리집 알림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목포시는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따

른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메인 주차장 848면과 임시 주차장 868면을 확보하는 등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운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는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가 목포 곳곳에서 펼쳐지는 '목포(愛)가을(藝)페스티벌(樂)'을 열어 관광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친절·질서·청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친절한 손님맞이, 위생적인 식당, 바가지 없는 요금,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지역 경제가 특수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맛의 도시이자 근대역사문화도시인 목포에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 기상청과 '건강기후지수' 개발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 추진 회의 개최

완도군이 기상청과 협력하여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완도 건강기후지수(UTCI)를 개발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서 완도군, 기상청, 관계 기관 전문가가 참석하여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사업' 추진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밀의료 해양기후치유 콘텐츠 개발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의 5개 단위 사업 중 건강기후지수 개발 등 개인 맞춤형 해양기후치유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완도군과 기상청은 '정밀의료 해양기후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정책적 지원 및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 6월 27일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후속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기상청은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은 물론 완도 건강기후지수 개발에 따른 기상 장비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신여자대학교 박만식 교수는 “국



고온과 저온의 스트레스 평가를 위해 인체 열수치 모델이 반영된 건강기후지수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